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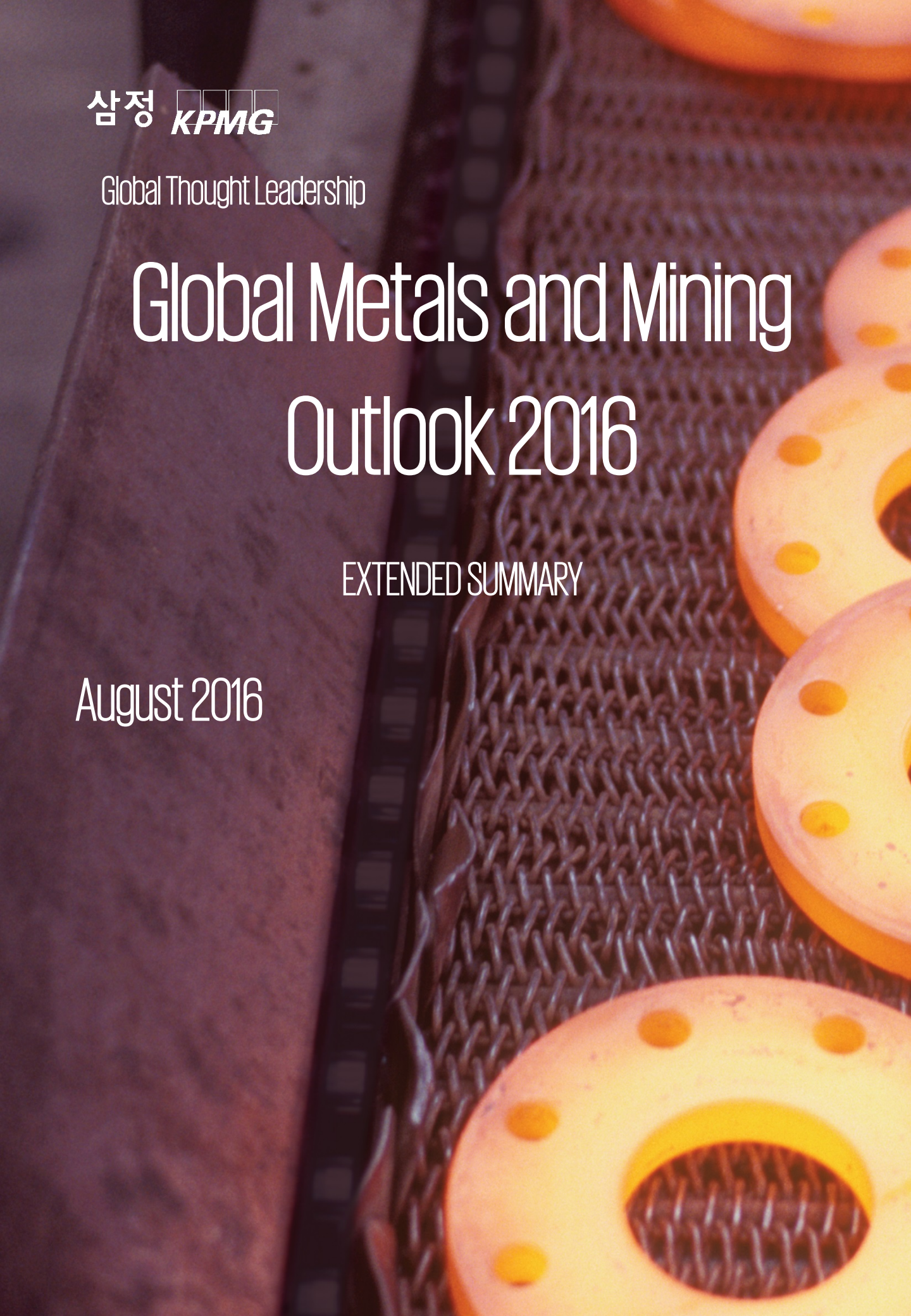


Global Thought Leadership

Global Metals and Mining Outlook 2016

EXTENDED SUMMARY

August 2016



본 보고서는 철강기업의 고위 경영진 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Forbes의 서베이와 KPMG Global Network의 철강·광산산업 리더들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pdf/2016/08/kpmg-metals-mining-outlook-2016.pdf>

Key takeaways

- 철강기업은 글로벌 경제회복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비용절감과 실적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철강기업들은 시장점유율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용절감과 고객 접근성 강화를 위해 투자전략을 조정할 계획
- 철강기업들은 R&D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계획이며, 새로운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철강기업들은 공급 체인 실패(supply chain failure)의 잠재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공급 네트워크에 대하여 완전한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지 못함

CHA1. Growing ahead of the market



선도적인 철강기업들은 산업통합과 설비감축을 위해 정부 및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중

Forbes(2016)에 따르면 철강기업의 고위 경영진 62명 중 48%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1%가 향후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성장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도적인 철강기업들은 연관산업의 통합과 구조적인 설비감축을 위해 정부 및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저비용으로 상품 생산이 가능한 공급자들과의 시장경쟁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용 우위에 있는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광산기업들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현금 흐름 수익(cash flow return)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자본 재배치에 집중하고 있다.

CHA2: Looking for new opportunities



철강·광산기업들은
신흥시장의 무역관세,
무역장벽, 보호무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고부가가치의
자산매입 기회를
탐색중

성장을 위한 두 가지 우선전략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다. 철강기업의 고위 경영진 62명 중 94%가 제조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26%는 고객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선도적인 철강기업들은 신규 또는 신흥시장의 무역관세, 무역장벽 혹은 자국보호의 영향을 이해하고 있으며 국내제작과 수입의 이점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선도적인 광산기업들은 비용 효율성과 운영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지리적 시장의 고부가가치 자산매입에 대한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 또한, 자산, 제품,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하며 지속성장을 위한 최적의 발자취(footprint)를 구상하고 있다.

CHA3: Ambitious investments to drive growth

철강기업들은 더 많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R&D 투자비중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기업의 고위 경영진 62명 중 43%가 향후 2년 동안 수익의 6% 이상을 R&D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42%는 로보틱스에, 32%는 AI와 인지 컴퓨팅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 또는 경쟁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비용을 분배하고, 진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선도적인 광산기업들은 광산업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동화(automation)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CHA4: Working together to improve visibility and predict demand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공급체인의 효율성과
가시성 확보

철강산업의 고위 경영진 62명 중 82%는 공급 체인 실패가 성장에 대한 잠재 리스크라고 판단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23%만이 공급체인이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도적인 철강기업들은 다운스트림부터 업스트림까지 공급체인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공급체인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증진하려고 한다. 한편, 광산기업들은 가격인상과 수요량 증감을 예측하여, 생산량을 조절한다. 또한, 공급 체인 효율성과 가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자동차 산업과 같은 타 제조 부문에서 배우며, 개발(development)에서 운영(operation)으로 공급체인의 초점을 이동시키고 있다.



Contact us

엄이슬

연구원

T: 02-2112-3918

E: yeom@kr.kpmg.com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